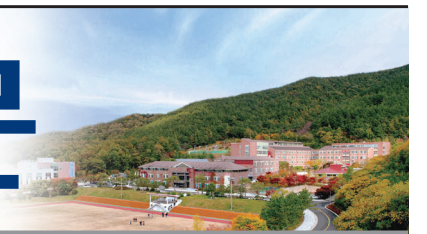




충남도립대학교신문



2020. July

발행처 충남도립대학교 신문사 | 발행인 총장 허재영 | 주간교수 김은희 | 편집국장 엄기연 | 발행일 2020년 7월 제 51호 | 디자인 예당기획 Tel 041-333-4405

No. 51

팬데믹 100일... 도립대 길을 찾다!

온·오프라인 병행, 100일간의 분투



> 보도 01

❖ 맹채영 _ chaeng2094@gmail.com | 이민주 _ minju7532@naver.com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처음 마주하는 상황에 혼란이 높아짐에도 충남도립대학교가 1학기를 코로나 발생자 없이 무사히 마쳤다. 충남도립대학교는 3월 16일 비대면 개강을 시행한 후, 계속 변경되는 국가방침으로 인해 5월 3일 교내기숙사(이하 열정관) 입실을 시작으로 대면강의를 시행하였다. 학생들은 사이버 강의가 아닌 대면 강의를 진행하며 수업 질의 향상을 느꼈으며 최근에 12개 학과 중 일부 학과는 대면으로 중간고사 시험도 진행하였다.

중간고사 시험이 진행된 환경보건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임세령 학생은 “학교 측에서 코로나 예방 차원으로 마스크 착용 후 학생 간 거리 두기 등의 노력을 통해 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된 것 같지만, 잦은 수업 시간의 변동과 온라인 강의로 전공 과목에 대한 시험 대비가 촉박하게 이루어진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고 학교 측에 보완할 점을 강조했다.

충남도립대학교는 현재 종강을 앞둔 시점, 철저한 방역지침을 따라 환자 발생 0명을 기록하였다. 코로나19 관련 체온측정 팔찌를 착용하므로 매일 같이 학생들의 체온측정을 의무화했고,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주요 시설의 출입구 일부 폐쇄와 외부인 출입제한 등을 추진하고 개방된 출입구에는 교직원 방역 근무조를 배치해 감염 확산을 통제하였다. 또한, 기숙사 내부에서는 지속적인 방수를 통해 마스크 착용을 상기시켜주었다.



식당 측에서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방지해 학과별 중식 시간표를 만들고, 투명 아크릴판을 설치해 비말감염을 철저히 예방하였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이 충남도립대학교는 코로나 19의 혼돈한 상황 속에도 방역수칙을 지키며 예정된 학사일정을 마무리하고 있다. RC프로그램과 공공인재반 선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이 안전하게 진행되었다.

허재영 총장은 “학생 등교에 맞춰 전 교직원 비상방역 근무체제로 전환하고 마스크 쓰기과 거리유지하기, 손 소독하기, 체온 확인하기 등 생활방역에 철저를 기하려 한다”며 “각자 스스로 방역 주체로 참여하고 옆 사람을 배려할 때 비로소 코로나 종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음을 이번 사태가 말해주고 있다”면서 우리 모두 생활방역으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변경되는 학사일정으로 인해 혼란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참여해 코로나의 위험을 당당히 이겨내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두 달여간 학교를 안전하게 지켜준 학우분들과 교직원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INSIDE

02 03

- 공직 희망자 모여라
- 마음이 비워지는 자리에 사랑의 싹이 돌아납니다
- 충남 유일의 「도립대」, 도립대란 무엇인가...
- #우리의_일상_되찾아가는 중

04

- 장학제도 활용비법
- 학교 홍보 부탁해요
- 지원비-기숙사비=0원
- 우리의 대학 알림이?
- 교외기숙사야 친해지자

05

- 포스트 코로나19, 안전한 세상을 꿈꾸다
- 소방안전과 관련된 또 다른 직업 ‘특수진화대’

06

- 유튜브와 k-콘텐츠
- 지금의 평화는 당신의 덕입니다
- 루프 코리아를 아시나요?

07

- 사랑, 너도 할 수 있어
- 벚꽃 길 걸으며 큰형님이

공직 희망자 모여라

공무원 진출 현황 2020년 7월 기준			
연도별	임용현황(명)		
	소계	공개경쟁	경력경쟁
계	844	493	351
2020	—	—	—
2019	68	68	—
2018	69	62	1
2017	42	32	10
2016	42	32	10
2015	62	49	13
2014	44	32	12
2013	59	46	13
2012	39	25	14
2011	30	15	15
2010	28	15	13
2009	43	19	24
2008	45	19	26
2007	42	18	24
2006	45	18	27
2005	43	16	27
2004	31	14	17
2003	20	5	15
2002	18	5	13
2001	23	3	20
2000	28	—	28
1999	23	—	23

충남도립대학교는 지난해 기준 총 844명의 공무원을 배출했으며, 지난 한 해에는 68명이 공직에 진출하는 등 공직 명문으로 역량을 높이고 있다.

충남도립대학교는 재학생들을 공공기관 지역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의 '심화학습실'에서 '공공인재관'으로 변경·운영했다. 이는 공직 진출에만 초점이 맞춰있던 '심화학습실'의 폭을 넓혀 공공기관과 국가 자격증 취득까지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공인재관에서는 '공직역량장학금'이 신설 되었고, 공직 진출 박람회·공공기관 현장견학을 통해 공공기관 합격률을 높이고 의욕적인 면학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도 박람회나 현장견학 계획은 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경과를 지켜보는 중이다. 공직역량장학금은 90% 이상의 출석률과 기준 성적 이상이 되면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장학생에 한해서 일부 인터넷 강의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허재영 총장은 "그동안 충남도립대학교는 심화학습실을 통해 최고의 공직 명문으로 성장해 왔으며, 공공인재관을 통해 그 역량을 공공기관으로까지 확장하려 한다"며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대비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토대를 착실히 마련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으로 역량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공공인재관은 1년의 4번(3월, 6월, 9월, 12월) 모의고사를 실시한다. 지난, 6월 2일(화) 2020년 제2회 공공인재 모의고사를 실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3월 예정이었던 모의고사는 실시하지 못했다.



제2회 공공인재관

- ▶ 입실일: 6월 22일(월)~하계방학까지
- ▶ 장소 및 운영시간: 도서관 2층 열람실 평일 08:00~18:00 / 주말 운영 폐지
 - ※ 기존 평일 08:00~23:00 / 주말 09:00~18:00으로 운영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운영시간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음.
- ▶ 모집인원: 26명
 - ※ 기존 전 학년 기준 56명 →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인원 축소

공공인재관 학생들은 얼마 남지 않은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비롯한 학생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공직, 학교의 많은 지원과 관심 그리고 함께하는 친구들에게 힘을 얻어 꿈을 향해 가는 동아리실로 활용해 보자.

학생상담센터, 제 5기 또래상담자 'HUMAN LINKS' "마음이 비워지는 자리에 사랑의 싹이 돌아납니다"



함께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친구, 우리들의 정다운 친구인 또래상담자가 또래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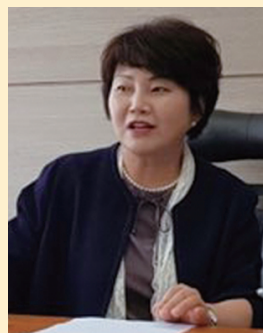
학생 지원처 학생상담센터는 2016년 2학기부터 매 학기 학과별로 재학생 2~3명을 선발하여 '또래상담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래상담자는 비슷한 연령과 유사한 경험 및 가치관 등을 지닌 대학생들이 일정한 훈련을 받은 후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주변에 있는 정상적인 다른 또래(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주력하고, 또래들과 더불어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 제반 영역에서 지지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활동을 한다.

제 5기 또래상담자 'Human Links'는 총 20명으로 다양한 학과 융합 상담동아리이다. 또래상담자들의 교육은 코로나로 인해 대면 교육이 어려워진 관계로 현재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모바일 전문상담인 '다들어줄 개'를 이용하여 각자 자신의 고민(친구관계, 학업, 건강, 진로 등)을 상담 받아보고,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고민프리상담소'의 영상을 시청하는 등 온라인 교육을 통해 또래 상담자로서의 원칙을 갖춰가고 있다.

지난 6월 8일에는 학생상담센터 주최로 해오름관 소강당에서 또래상담자 'Human Links'의 대면식을 가졌다. 코로나19 안전 수칙을 지키며 진행하였고, 신입 또래상담자들과 기존 또래상담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기존 활동 내용과 개선되어야 할 점 등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또래상담자의 1학기 활동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온라인을 통한 교육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코로나 사태가 나아지면 워크숍 및 대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생상담센터장이자 또래상담자 담당을 맡은 김경주 교수를 만나 또래상담자에 관한 역할과 취지, 앞으로의 방향을 질문하여 진행했다.



김경주 | 학생상담센터장

- Q** 안녕하세요! 우선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학생상담센터장이자 또래상담자 동아리 'HUMAN LINKS'를 담당하고 있는 김경주 교수입니다. 먼저 우리 대학 신문사에서 상담실에서 하는 여러 활동 중 또래상담자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 Q** 또래상담자 동아리의 이름인 'HUMAN LINKS'의 의미는?
- 처음 동아리를 만들 때 또래상담자이지만 상담실과 관련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선정하는데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다양한 이름들도 많이 나왔지만 Human Links라는 말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Human이란 인간, 인류애를 뜻하며 Links는 연결을 뜻하잖아요. 결국엔 사람과의 연결, 사람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시공간을 초월해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있다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 Q** 또래상담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저는 또래상담자들의 역할을 학생들이 전문성을 가진 상담자로서 또래들을 상담해주는 것이 아니라 동료 상담, 즉 친구가 친구를 상담해주는 정도로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점이 강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대학생활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학업 보다는 대인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래상담자들에게 바라고 강조하는 점은 전문성을 지닌 상담사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어려움이 있는 친구의 말에 공감해주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을 바랍니다.

- Q** 또래상담동아리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 또래상담자는 2016년도 이후에 개설되었고, 학생상담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초기에는 많은 학생들이 상담을 받으려고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학교 내에 상담실이 있는지도 몰랐으며 거부감이 있었는지 잘 오려고 하지 않은게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 후에 타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또래상담자' 활동을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또래상담자'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또래상담자를 모집하고 운영하다보면 또래들끼리의 공감감을 가져 고민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뿐만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이라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Q** 또래상담자 동아리 앞으로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 또래상담자 활동에는 상담에 관련한 기초 교육을 거쳐서 상담을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한 상담을 전문가에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피드백, 즉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교육을 하는게 굉장히 조심스러웠지만, 그런데도 또래상담자 역할은 필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 현재처럼 온라인 교육으로 이어갈 것 같아요. 학기 말에는 또래상담자 결과를 평가할 예정이며 2학기 때는 1박 2일 워크숍으로 상담자 자격증 취득이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또래상담자 활동을 보면 아직까진 많은 학생들이 또래상담자를 통해 많은 상담을 받은 것 같진 않아요. 또래상담자들의 활동이 활발하진 않았던 거 같아서 학과계시판이나 학내소식 같은 곳에 홍보를 많이하여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충남 유일의 「도립대」, 도립대란 무엇인가...’

전국에는 강원, 경북, 경남도립거창·경남도립남해, 서울시립, 전남, 충남, 충북에 도립대학이 7개가 있다.

전국에는 강원, 경북, 경남도립거창·경남도립남해, 서울시립, 전남, 충남, 충북에 도립대학이 7개가 있다. 충남의 도립대는 1997년 11월 청양전문대학으로 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해 12월 초대학장으로 백승탁(백종원 아버지)이 취임하여 지어지게 되었다. 우수 인재가 도내에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도민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며,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렇게 충남도립대학은 충청남도 청양군에 있는 도립 전문대학이다. 또한 충청남도의 전문대학 중 유일한 국립대학이다. 충남도립대학의 전신은 1997년 세워진 청양전문대학이다. 1998년 3월 개교 당시 대학에는 10개 학과가 있었고 학생 수는 400명이었다. 1998년 청양대학으로 이름을 바꿨다. 2002년 공주대학교, 한밭대학교, 관동대학교 등과 학술교류 협정을 맺었다. 2005년 작업치료과를, 2006년 자치경찰계열을 각각 신설했다. 2009년 교명을 충남도립청양대학으로 변경, 이후 충남도립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교내 재정의 80% 이상은 충청남도에서 지원한다고 하며, 이는 공립대학 중 최고 수준이고, 이 비율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립대의 특성상 등록금이 낮은 편에 속하며 정원도 많지 않고, 대부분 2년제라 그렇다. 등록금을 아예 안 내고 다니는 학생의 비율도 상당하다.



▲ 충남도립대학교 허재영 총장

98년 오지개발촉진법을 근거로 세워진 도립대 설립취지는 무엇인가요?

충남도립대는 충남도민이 설립한 우리 지역 대표 공공교육 기관이다. 또한 지역균형 발전을 상징하는 대학이다. 대한민국의 많은 자원이 수도권과 도시로 집중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보상은 윤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함께 성장하기 위해 많은 것을 내어준 지역은 마땅히 균형발전의 기회를 받을 권리가 있다. 도립대는 그동안 어려운 지역에 균형을 이루도록, 이는 시골·저소득층 자녀에게 주던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하도록 말이다.

충청정체성 연구를 제안한 바 있다. 도립대의 역할이 있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극단으로 내달리고 있다. 정치적 극단, 경제적 극단은 건강한 공동체성을 훼손하는 위협이 된다. 어느 시기보다 균형이 필요한 때다. 니체는 균형의 의미를 극단을 수용하는 힘이라 했다. 중심이 되는 정신이 필요하다. 충남은 과거 동아시아교류왕국 거점으로 차이와 다름을 포용하고 함께 성장한 열린 정체성의 지역이다. 오래된 과거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 다름과 차이를 포용하고 극단의 중심을 잡아 줄 열린 정체성을 재구성해 나갈 준비가 시급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해 충청정체성 연구를 제안한 바 있다. 충남과 충북, 대전과 세종 시·도시사와 함께 충청정신을 확립하기 위한 포럼을 발족했다. 충남도립대는 충남 대표 공립대로 충청정체성을 연구하고 구성할 위한 의무가 있다. 다양한 기관과의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며, 충청정체성 교육을 위한 무대로 활약해야 한다.

#우리의_일상_되찾아가는 중



▲ 늦은시간까지 스탠드가 켜져있는 카페마루

각종 시험 스케줄이 놓인 시점, 학우들은 2층 열람실 개방이나, 빈 강의실을 자습실로 활용한 대안 등을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몇 개월 만에 개방된 2층 열람실 내부

학우들의 의견과 학교 측의 협의로 약한달이 지난 6월 22일, 안심하긴 이르지만 우리의 일상을 되찾아가기 위해 도서관 측은 2층 열람실과 공공인재관을 개방하였다. 물론 거리두기 좌석제로 인하여 180석 중 38석만을 임시로 개방하였다. 좌석이 부족하다고 판단 시에 추가 좌석을 마련해 모든 학우들이 공평하게 학교 시설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임시 개방 계획은 학기 중인 7월 24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코로나 사태가 2학기에도 종식되지 않을 경우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충남도립대학교 도서관은 마스크 필수 착용과 상시 체온 확인으로 발열 증세가 나타날 시 즉시 출입을 제한한다. 또한, 프린트 사용 시 니트릴 장갑 필수 착용과 사용 후 직접 접촉한 의자나 프린트기를 수시로 소독하며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도서관 측은 전국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도서관 방역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 불편으로 인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심정을 밝혔다. 도서관 2층에 DVD와 영화 시설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있고, 3층은 그룹스터디가 가능하며 코로나 사태 종료 시 이러한 도서관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길 희망하였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며 공공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을 되찾아가는 지름길 아닐까?

RC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충남도립대학 재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숙형 캠퍼스(RC)를 시작했다. 2019년부터 시작한 기숙형 캠퍼스(RC)는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청양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일과 후에도 학생들의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작했다.



▲ 2020년 RC프로그램 필라테스

주요 프로그램은 독서토론회, 유화&수채화, 캘리그래피, 필라테스, 테니스, 우쿠렐레 등 총 8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취미활동을 하고 싶은 모든 학생이 대상이며, 1주일에 한 번 3시간,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허재영 총장은 "청양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소비문화가 도시보다 부족하지만, 기숙형 캠퍼스에 참여하면 누구보다 풍부한 문화 소비를 즐길 수 있다"며 대학 교육의 범위를 일과 후에도 확장해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20년 RC프로그램 성과발표회

테니스 등 각 부분에서 경합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영화제 공모전은 1학기 RC 프로그램 활동을 담은 영상을 받아 최우수 작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위스토리 01

❖ 이정민 _ lbh0855@naver.com

슬기로운 대학 생활 장학제도 활용비법

대학 생활의 가장 큰 고민은 등록금일 것이다. 충남도립대는 전국 전문대 평균 등록금 (579만원)의 42% 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한 등록금을 자랑한다.

학생 혼자 등록금을 감당하기란 역시 쉽지만은 않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빚을 짊어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게 당연시되고 있는 요즘,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충당하기엔 그 금액이 부담스럽고, 학업에 소홀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장학금'이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해보도록 하자.

국가장학금, 다들 신청했어?

먼저 국가장학금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가 직접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는 1유형과 학점과 같은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1유형은 소득 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52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우리 학교의 등록금은 연평균 2,448,100원으로 1~6분위의 학생은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7분위와 8분위의 학생은 연간 120만 원, 67.5만 원의 장학금이 각각 지급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니 신청 기간 내에 잊지 말고 반드시 대학생의 권리를 누리기를 바란다.

성적우수장학금, 고학점 받고 장학금 받자!

성적우수장학금은 말 그대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다. 전체 수석 입학, 전체 차석 입학 학생이 받았던 장학금이 이에 속한다. 그뿐만 아니라 학과별로 수석자와 차석자 그리고 학과성적 10% 이내 해당자에게 주어지는 격려 장학금이 있다.

성적우수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수혜 여부에 따라 지급 방법이 다르다. 국가장학금 비 수혜자는 다음 학기 등록금에서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학과별 수석은 한 학기 등록금, 학과별 차석은 한 학기 등록금의 60%, 격려 장학금 해당자는 등록금의 40%를 지원해 준다.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경우는 수석자 50만 원, 차석자 40만 원, 격려 장학생 30만 원이 학기 말에 지급된다.

특별장학금, 너도 장학금 받을 수 있어!

장학금은 공부를 잘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장학금에 대해 괴리감을 느끼는 학생이 많은 것이다. 그러나 장학금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다.

첫 번째로, 공로 장학금이다. 공로 장학금은 학교 발전에 공헌한 학생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다. 대표적으로는 총학생회 임원과 각 학과의 학회장 그리고 신문방송부의 조직 구성원이 공로 장학생의 대상이 된다. 두 번째로 대내의 활동으로 우리 학교를 알리는데 이바지하는 홍보대사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는 학문적인 성취를 격려하기 위해 재학 중 자격증 취득 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자신에게 맞는 장학금이 무엇이 있는지 꼭 찾아서 슬기로운 학교생활을 위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위스토리 03

❖ 남민기 _ 5641023@naver.com ❖ 손민지 _ smz0920@naver.com

무엇이든 물어봐요 지원비-기숙사비=0원

작년 2019년 11월 달부터 주1회 충남도립대 교내기숙사, 읍내 소재 기관을 찾아다니며 지원 혜택과 절차 홍보를 중심으로 한 전입부스를 운영하면서 기숙사비 혜택을 주기 시작했다. 청양읍은 적극적으로 인구증가정책을 추진하여 인구정책을 견인하고자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였다.

민원안내 및 신청

전입신고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즉시(사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전입신고서에 첨부 서류 이외, 전입지에 일부 미흡, 주민등록가(주민등록지출금) 신고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첨) (세무서 또는 읍내사무소) * 신청서류를 발급의 마지막 조항 뒤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주민등록)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본인인 대리인 신청 불가)

정부24 홈페이지-전입신고

또한 민원24를 통해 신청하실 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Q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나?

1학기당 교내는 50,000원, 교외는 384,000원(예치금 제외)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재학 중 최대 2학기분만을 받을 수 있어 총 교내는 1,000,000원, 교외는 768,000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학기별 거주 생활권이 다를 경우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Q 그 밖의 유의사항은?

꼭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금년도 1학기분만 기숙사비 지원받은 학생은 이후 1학기분 기숙사비 지원 가능하다.

Q 주소는 어떻게 옮기는 것인가?

주소를 옮기기 위해서는 먼저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청양읍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신청(민원24)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Q 전입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나?

읍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때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 위스토리 02

❖ 이정민 _ lbh0855@naver.com

제2기 홍보대사 출범 학교 홍보 부탁해요

우리 대학은 지난 6월 15일에 제2기 학생 홍보대사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총 12명의 제2기 홍보대사 학생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선서식 등을 했다. 행사 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학생 홍보대사는 충남도립대학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공식 SNS를 통해 충남도립대학교 관련 홍보콘텐츠를 제작 및 관리하면서, 온라인에서의 대학홍보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양윤희 | 토지행정학과 2기 홍보대사

Q 전반적인 활동 계획에 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홍보대사는 총 12명으로 과의 특성들을 잘 보여주기 위해 가능한 각 과에서 가능한 한 명씩 참여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과나 학교에서 하는 활동을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에 달마다 1~2개 정도의 게시물을 올려 홍보를 하여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도립대를 쉽게 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수시 시즌에 학생들이 도립대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담당하는 역할이 되기도 합니다.

Q 홍보대사로서 기대되는 점

중, 고등학생 때부터 특정한 활동을 안 해봐서 그런지 사실 기대되는 점은 많았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홍보대사를 통해 선후배와 친해질 기회도 만들고 주어진 활동들을 하면서 리더십이나 경험을 쌓는 등 새로운 것들에 대해 하나씩 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좋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1학기는 많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2학기에는 좀 더 기대가 됩니다!

Q 홍보대사가 말하는 충남도립대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충남도립대학교는 전문대로서 저렴한 학비와 기숙사비, 취미를 즐길 수 있는 RC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비용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학부모님은 물론, 학생들의 부담까지 덜어줍니다. 두 번째로, 충남도립대는 매년 다수의 공무원을 배출하는데 특히 2019년인 작년에는 68명의 공무원을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공무원 진출을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저희 학교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또한 취업하기 어려운 요즘 시대에 작업치료과, 전기 전자 공학과 등 충남 도립대에 있는 여러 학과들의 취업률을 보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의 진출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취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학교입니다.

■ 우리의 대학 알림이!?

Q 에브리타임은 무엇인가?

전국의 대학생들을 위한 대학교 시간표 스케줄러 애플리케이션으로 시작해 현재는 대학교 커뮤니티의 역할도 겸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시간표, 학점 계산기, 강의평가, 서적 거래, 메모 등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 학교는 게시판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Q 주로 무슨 글이 많이 올라오나?

새내기 게시판에서 많은 글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도 교내, 교외 할 것 없이 세탁기에 빨래를 넣어두고 세탁시간이 완료되었음에도 빨래를 찾아가지 않아 짜증을 내는 글, 지역 · 학교 버스 시간표가 몇 시인지, 학교 장학금 등의 글을 많이 볼 수 있다.

Q 제일 불만을 말하는 건의 글 1위는 무엇인가?

HOT 게시판을 보면 이미 개강 연기를 오래하여 지금 학교를 나오게 되면 1학기를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기 때문에 1학기를 전면사이버강의를 하자는 건의 글이 많이 올라왔다.

■ 교외기숙사야 친해지자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도 충남도립대학교는 개강을 시행함에 따라 기숙사를 두고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생겨나고 있다. 직접 만나 들어본 학생들의 궁금증과 학교 sns에서 자주 언급되는 기숙사 관련 궁금증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소개하려 한다.

Q 기숙사에 입실한 학생들 중 3인실을 신청했으나 2인만 들어온 방의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는가?

1명이 없어도 그에 대한 추가적인 요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용한 공과금에 대해서는 2인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Q 기숙사비 중 예치금 20만원은 한 학기가 끝난 이후 그대로 돌려받는 돈인지 아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돈인지?

예치금 20만원은 각 방에 따라 다르게 정산된다고 한다. 현재 각 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도요금, 전기세, 에어컨이나 보일러를 사용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각 방에서 사용하는 전기세, 수도세와 같은 공과금이 납부한 기숙사비에서 초과 되었을 때, 초과한 만큼을 예치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차액을 돌려준다.

인터뷰

“포스트 코로나19, 안전한 세상을 꿈꾸다”



유대준 교수 | 소방안전관리학과

“안전과 경제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일지라도 과정은 서로가 경쟁하는 관계일 것이다. 경제가 활성화될수록 부의 분배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 안전은 부의 재활용으로 사용된다. 이제는 안전한 세상 만들기를 통해 국민이 행복해지는 선진국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충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유대준 교수와의 만남이다.

유대준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19, 안전한 세상을 꿈꾸다.’라는 논문을 적음으로 융합의 세상 속 협업과 안전, 코로나 사태로 인해 벌어진 변화를 여러 사례를 들어 말하고자한다.

코로나가 불러온 비대면의 사회를 말한다면

비대면은 예전부터 중요한 사안으로 이어져왔다. 단지 현재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비대면 사회를 과속화 시킨 것일 뿐이다. 세상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 발전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부족한게 무엇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야하는지가 중요하다.

비대면의 세상은 나와 사람의 대상이 아니라 나와 기술의 관계이다. 이를 협업을 통해 배워나가야 융합이 되며 비대면에 가야하는 방향 중 가장 중요한 방법이 ‘협업’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융합의 세상이 비대면이라는 세상과 반대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융합’은 하나로 합쳐지고, ‘비대면’이라는 말은 서로를 보지 않는다는 뜻인데, 우리는 현재 비대면 사회 속에서 융합의 세상으로 달려나가고 있다. 다만 비대면은 그 요소가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이고, 융합의 테두리에 똑같은 지향점을 지녀야 한다. 사람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비접촉 시대에 무엇이 발생할지만 불안이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소방 관련 부서들 간의 협업은 어떠한지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는 부서들은 한 부서로 정해져있는게 아니다. 소방 관련 부서들 간의 협업은 아직까진 잘 진행된다고 볼 순 없다. 협업의 단점 중엔 주인의식의 결여가 있다. 협업은 공유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주인의식이 결여된다는 점이 융합의 세상에서 단점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게 가장 큰 단점이다.

화재 사건이 일어난 원인이 한국의 문화와 관련 있는가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쿠팡물류센터와 이천 물류화재를 말할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문화와 관련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실행해 이윤을 얻고자 하여 화재사고 등을 불러일으킨 문화이다. 문화적 인식을 고칠 수 있는 법은 우리의 생각 문제에 달려있다. 당일배송이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택배 문화는 언제까지 배송해줄 것인지가 중요한거지 오늘 배송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게 아니다. 한국의 재촉하는 성급한 문화가 없었다면 두 사건의 화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현재에는 배송이 최대한 빨리 오지 않으면 답답하는 감정을 공감하긴 하지만, 우리의 이런 인식 문제가 큰 사건으로 발발하니까 주의해야하고 문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제 인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방향성이다. 우린 아직 어디로 나아가야할지 몰라서 올바른 가치관을 정하고, 환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 일정 부분을 포기해야한다. 우리는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포기할 건 포기하고 추구해야 할 것은 명확하게 해야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 정책이 안착 되지 않는다. 경기 이천화재와 산불, 물류창고 화재 등 이러한 화재는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보다 대처방법 등이 좋아질 것은 확실하다. 거기에서 국민이 어떤 인식을 갖고 살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기 고용 형태가 지속되어야 하는가

단기 고용 형태는 지속되고 안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단기고용을 점점 줄여나가야 하지 않을까싶고, 이것의 첫 출발 사례를 보여주는건 국민고용보험제도라는 것이다. 국민고용보험제도란 국가가 모든 국민한테 일을 하면 보험을 들어준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단기인지 장기인지가 아니라 개선이 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그렇다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좋아져야 하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경제와 안전 모두 중요하다. 다만, 경제를 너무 강조하다보면 안전이라는 가치를 너무 소홀히 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 현재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이걸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 중 하나가 화재 사건이다. 단순히 화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사는 삶 전반에 고용의 불균형과 같은 문제들도 바로 이런 양상이 들어나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려면 근본적이긴 하지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지 않고 집을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토대에 해당하는게 바로 개개인의 가치관의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의 하나는 사람과 사람이 손을 맞잡고 좋은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더불어 함께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방안전과 관련된 또 다른 직업
‘특수진화대’

충남도립대학교의 다양한 학과 중 소방안전관리학과와 관련하여 색다른 직업군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소방관 이외에 산불과 같은 대형 화재의 사건, 사고 속에 앞장 서 화재를 진압하는 이들이 있다.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는 야간 시간, 소방 대원들이 투입되기 어려운 상황 속 숨은 히어로, 그들은 ‘특수진화대(소방대원)’이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육성 등 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소방관들이 소속되어 있는 소방청과 특수진화대는 소속이 다르다. 특수 진화대는 다시 2개로 구분이 가능한데, 산림청 특수진화대는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이고, 나머지 하나는 항공 관리소에서 운영하는 공중 진화대이다.

이들은 관리소에서 전국 화재 현황을 살핀다. 만약 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이들이 현장에 투입되게 될 때에는 헬기를 타고 ‘레펠링’을 통해 현장에 접근한다. ‘레펠링’은 밧줄을 타고 공중에서 내려오는 방법으로, 이들은 ‘접근이 어려운 화재 차단 지역’ 즉, 퇴로가 막힌 곳에서 진화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들은 지난 5월 있었던 고성 산불 화재 속에도 투입되어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저지선 작업을 수행했다.

이들은 화재 속에 투입, 퇴로가 막힌 곳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한다. 만약, 화재가 커져 이들을 덮치게 된다면 이들은 더 이상의 퇴로가 없어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기에, 올해 봄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EBS <극한직업> 다큐 속 ‘산불 특수진화대’에 대한 내용도 있다고 하니, 이들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 위스토리 05

❖ 자치행정학과 김정희 교수

오피니언

유튜브와 k-콘텐츠

유튜브는 기존의 전통적인 플랫폼들과는 다르게 개인이 원하는 영상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동시에 자신만의 멋진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 할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영상에 광고를 기재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으며, 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경우 구독자 수가 늘어 나만의 팬클럽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뉴미디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비디오 플랫폼이라 할 수 있는 유튜브만의 매리트이다.

게임 스트리머로 활동하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이자 콘텐츠 크리에이터인 대도서관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유통의 혁명'이라 말한다. 방송을 하기 위한 절대적 관문으로 여겨졌던 방송국을 거치지 않고도, 단지 클릭 몇 번만으로 자신만의 방송을 내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대도서관은 이러한 뉴미디어가 가져온 큰 변화와 흐름을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게임이라는 취미를 콘텐츠와 접목시켜 유튜버로서 큰 성공을 거둔 것과 같이,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를 친근감, 기획력, 그리고 성실함을 자본으로 하여 유튜브 콘텐츠로 도출해 내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성취감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학력, 경력이 아닌 재능과 개성에 초점을 맞춘 나 자신만의 브랜드화를 이루어 내는 것이다.

먹방을 초점으로 하는 '입짧은 햇님'과 '평개명', 뷰티를 초점으로 하는 '회사원A'와 '썬님', 헬스를 초점으로 하는 '흑자형님'과 '로이더TV'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이 가장 잘 알고, 관심이 있고, 즐거워하는 분야를 그저 혼자만의 놀이가 아닌, 콘텐츠로 승화시켜 모두의 놀이로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저 단순한 시청자이자 소비자라면 머물렀던 사람이라면 어떤 누구라도 충분히 유튜버가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갖게 해준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포화상태에 놓여있는 유튜브 세계에 단순히 자신의 취미라는 소재만을 가지고 뛰어들기에는 너무 무모하며 차별성이 없지 않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솔루션은 'k-콘텐츠와 개성, 그리고 친근감에 있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

'산적tv 밥굽남'은 먹방을 주요한 콘텐츠로 하지만, 방에서 배달음식을 시켜먹는 기존의 먹방들과는 다르게 깊은 산속에서 직접구운 고기를 통째로 뜯어먹는 등등의 자신만의 차별성과 개성을 첨가하였다. 마치 산적의 먹방을 지켜보는 것 같은 '산적tv 밥굽남'은 "조선에 남은 마지막 산적"이라는 댓글이 달릴 정도로 시청자들로 하여금 신선함과 흥미로움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현재 84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을 만큼 고공행진 중이다. 이는 단조롭고 평범했던 먹방에 개성과 차별성이라는 조미를 첨가한 결과이다.

또한, '성호육요장'은 '두더지가 농작물에 주는 피해와 잡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두더지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단지 9분 동안 두더지만을 보여주는 특별한 것 하나 없는 이 영상은 무려 572만회라는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물론 두더지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으로 영상을 조회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 영상의 가장 큰 인기 요인은 바로 친근함에 있다 라고 본다. 영상 속에서 들리는 할아버지의 투박한 목소리는 마치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떠오를 만큼 친근하면서도 정다운 느낌을 들게 한다. 그리고 동시에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청자에게는 새로움과 편안함을, 시골에 거주하고 있는 시청자에게는 친근함을 느끼게 해준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익숙하며 친근한 것에 심리적으로 서슴없이 다가가게 되는데, 바로 이 점이 두더지 영상의 높은 조회수로 이어졌다 라고 본다. 이처럼 개성과 친근함, 그리고 k-콘텐츠와의 접목이 중요한 흥행요인으로 생각된다.

한류의 열풍이 유튜브로도 이어진 현대에 아이돌 뮤직비디오나 다양한 뷰티 영상들을 보면 외국인의 댓글이 상당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류의 열풍이 불려온 한국에 대한 관심이 관련 영상의 시청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점을 잘 활용한다면 외국인 구독자들과 그들로 인한 조회수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전대 단순히 치킨, 피자를 먹방하는 것이 아닌, 한국적인 불고기와 김치를 먹방 한다거나, 단순히 봄, 가을 메이크업이 아닌 k-드라마 속 여배우의 화장을 따라한 커버 메이크업을 제작하는 등의 k-콘텐츠와 자신의 것을 결합시킨다면 그 시너지효과는 폭발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또한 한류의 흥행이 불려온 k-콘텐츠의 성장, 유튜브와 k-콘텐츠의 상관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대적 흐름과 함께 사고의 탈피를 시도한다면 한국적인 문화를 세계적인 상품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 위스토리 07

❖ 남민기 _ 5641023@naver.com

루프 코리안을 아시나요?

1992년 4월 29일 오후 3시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서 로드니 킹 사건이 무죄 판결이 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로드니 킹 사건은 과속을 했던 흑인 운전자 로드니 킹을 백인 경찰 4명이 과잉 진압을 했던 사건으로 이 판결에서 경찰측이 무죄로 판결되며 흑인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일으켰다.



당시 LA 경찰당국은 미흡한 초동대응으로 비상령을 뒤늦게 내리고 백인 부유층만 보호함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했던 코리안타운으로 흑인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당시 두가지 요인으로 코리안타운이 시위대의 타겟이 되었는데, 첫째는 위치이다. 임대료가 싼 흑인 빈민가 부근에 가게를 시작해 자연스레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둘째는 미국 언론의 악의적 보도였다. 미국의 주요 방송사는 당시 흑인의 분노를 백인에서 한인으로 돌리기 위해 '두순자 사건'을 집중보도하였다. 두순자 사건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교민 두순자씨가 오렌지주스를 훔치려는 16세 흑인 소녀와 실랑이 끝에 우발적으로 총을 쏘 살해한 사건이다.

이러한 문제로 코리안타운이 무방비로 노출되며, 시위대에게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나 폭동에 의한 사망자는 0명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흑인 폭도들이 한국인들을 피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초기 경찰과 주방위군을 믿었던 한인들은 정부의 방관적인 태도에 '자신의 가족과 재산은 자신이 지킨다'라는 신념으로 스스로 자경단을 조직하여

그들의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시작했다.

당시 1992년 한인 타운에는 많은 예비군들이 존재했다. 대부분 군기가 가장 뻑했던 90년대 이전 군 복무자들이었고, 베트남 전쟁 파병용사와 심지어 6.25전쟁 참전자들도 존재했다. 이러한 예비군들이 총으로 무장하여 지붕 위에 방어 진지를 구축하며 폭동에 대응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없이 LA폭동이 마무리 되면서 '루프 코리안(지붕 위의 한국인)'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

현재 위조 지폐건으로 과잉 진압되어 사망되었던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루프 코리안'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6.25 전쟁 70주년

지금의 평화는 당신의 덕입니다

1950년 6월 25일, 한반도가 찢어진 아픔을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을까?

올해로 70년을 맞이했지만, 분단의 고통과 상처는 여전히 치유되고 있지 않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 현재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는 모든 근원이 그때 자신을 희생한 영웅들 덕분인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 이번 6.25 70주년 추념식 행사에서 배우 유승호가 20대 청년을 대표해 호국영웅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낭송한 헌정사 '영웅에게는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20대 청년들이 보고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인용해본다.

친구에게

허락하신다면, 나는 당신을 친구라 부르고 싶습니다.

1950년 짧은 생이 멈춘 그 순간 이후로, 당신은 나와 같은 20대 청년이기에 난 당신을 친구라 부르며 당신의 그날을 눈앞에 펼쳐보려 합니다.

친구여, 갑작스러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집을 나서던 순간,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서둘러 따뜻한 밥을 짓던 어머니의 손을 놓고 돌아서며 얼마나 목이 메셨습니까

친구여, 그런데도 당신은 낡은 군복에 소총 한 자루 움켜쥐고 전선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지옥 같은 전장에 도착한 당신은 누구보다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때론 태양을 질어선 듯 뜨거운 폭염 아래서, 때론 수통의 물마저 얼려버리는 칼날 같은 겨울바람 속에서, 전우들의 죽음을 넘어 끝없이 전진했습니다.

친구여, 그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어떻게 견뎠습니까.

매일 밤마다 찾아오는 두려움은 어찌 이겨내셨습니까.

포탄처럼 날아드는 번뇌와 서글픔은 또 어찌 삼키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순간엔, 누굴 떠올리며 눈을 감으셨습니까.

친구여, 당신이 총탄을 피해 몸을 숨겼던 낡은 집은, 이제 학생들이 뛰어노는 학교가 됐습니다.

잠시 가족의 사진을 꺼내보던 고단한 행군로는 이제 젊은이들의 자전거 길이 됐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못한 고향마을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큰 도시가 됐습니다.

친구여, 당신이 지켜낸 땅 위에서 전 이렇게 평화로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지켜낸 땅 위에서 우리는 또 이렇게 윤택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2020년 6월 25일 영웅의 친구가.

우리는 항상 우리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기억해야한다. 또 우린 가슴에 새겨 그 날의 아픔을 잊지 말아야한다. 현재 우리의 자유가, 그들의 희생으로 인해 가능했음을.



교수 칼럼

사랑, 너도 할 수 있어



“보고 또 보다
뒤쳐지는 걸음,
그것이
‘사랑’이다”

#1 고양이도 눈물을 흘릴 줄 안다

우리 집에는 고양이가 네 마리 산다. 월سن과 베리와 방울이, 그리고 태어난 지 딱 1년 되던 해 로드 킬 당한 모리.

검은 고양이였던 모리는 자기를 닮은 인형으로만 남아 있고, 모리를 끔찍이 좋아했던 월سن의 눈물은 바닥을 드러낸 마른 강이 되어 나의 도시 탈출 결심에 불을 지폈다.

#2 보통 사람의 보통 노래

요즘 가요계는 트로트가 대세란다. 그래서인지 평상시에는 잘 듣지 않던 트로트 곡이 어느 날 귀에 쏙 들어왔다. 나도 모르게 곡조를 따라하다 궁금해 찾아보니 헬스장에서 자주 들어 익숙한 박상철의 ‘무조건’이었다.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코로나 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었던 때, 그들의 바람에 ‘무조건’ 현장으로 뛰어간 이들은 누구였을까? 사랑하는 당신이 아니었음에도 땀범벅이 되어 기꺼이 족잡을 청한 그들은 누구였을까? 태평양과 대서양과 인도양을 건너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 정치적 거대 담론이나 알아듣기 어려운 법리적 논쟁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 팔 뻗을 줄 알았던 보통 사람들의 보통 노래였다.

#3 ‘고양이’는 고양이가 아니다

사랑을 뜻하는 한자 ‘愛(애)’를 잘 뜯어보면 心(마음 심)과 欠(뒤쳐져 올 치)가 들어 있다.

문학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듯,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에도 우리의 생각이 반영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점에 비추어 내가 내린 ‘사랑’의 의미는 이랬다.

사랑이란 안쓰러운 무엇 때문에 자꾸 뒤를 돌아보느라고 발걸음이 뒤쳐지는 상태의 다른 이름— 안쓰러운 무엇인가가 있음을 알기 위해 부단히 ‘보고 또 보는’ 자세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이다.

다시 우리 집 고양이 이야기로 돌아오면, 고양이 집사들이 해 준 조언 중 고양이는 원래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독립적인 동물이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꽃에 관한 시를 잘 쓰는 시인이라고 꽃밭을 잘 가꾸는 건 아닌 것처럼, 단어로 배운 ‘고양이’는 개념이었을 뿐 살아있는 월سن과 베리와 방울이 그 자체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자세히 보고 오래 보다 보면 개념화, 범주화를 위해 우리가 도외시한, 개체들의 개별적 특수성이 실제적 진실로 우리 앞에 오는 순간과 마주하게 된다. 그때 나는 그저 ‘고양이’가 아닌, 월سن과 베리와 방울이와 모리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부른다. 그들은 같이 있는 걸 좋아하고,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활보하길 원한다.

우리가 단어로 배운 ‘고양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고양이가 아니다!

#4 사랑은 아무나 하나?

9살 어린아이가 여행용 가방 안에 7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숨을 거뒀다.

2019년 개봉된 ‘어린 의뢰인’도 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내아이와, 동생을 죽음에 빠뜨렸다는 누명을 쓸 뻔 한 어린 누이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다. 관객 천 만을 넘기는 영화가 적지 않은 현실에서 누적관람객수 20만의 이 영화는 너무 쓸쓸했다.

내가 고양이를 단어로 배운 것처럼, 우리는 이런 사건을 접하면 ‘아동 복지’라는 용어부터 떠올린다. 전문적인 느낌이 강한 단어를 사용할수록 어린아이의 비명 소리를 듣지 못한 우리의 미안함은 희석되고, 아이의 실제적 공포는 토론의 장에서 통계 수치로 치환된다.

장강의 물이 아무리 풍부하다 해도 그것이 몇 백 리 떨어진 곳에 있다면, 여기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에 기대어 숨을 헐떡이는 물고기에게는 없는 물이나 다름없지 않겠는가.

원대한 무엇에 몰입하느라 자신 가까이 있는 작고 어린 것들을 ‘자주 또 오래’ 보아주지 않았다면, 남보다 앞선 빠른 걸음과 큰 목소리에 스스로 자랑스러워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나는 귀촌을 했다.

모리는 저 세상으로 갔지만, 로드 킬 당할 염려가 덜한 시골 마당에서 월سن, 베리, 방울이는 각자의 본성대로 잘 크고 있다. 그리고 그 길을 좀 천천히 걸으며 나는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 아동 복지 기관에 약간의 후원금을 내고 연말 정산의 세액 공제를 먼저 생각했던 내가...

사랑은 아무나 하나?

조금만 늦게 걸을 마음만 먹는다면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다. 아니, 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 사람!

‘벚꽃 길 걸으며 큰형님이’



송용찬 | 토지행정학과

2018년 토지행정학과 입학

2020년 토지행정학과 졸업

2020년 방송통신대학 편입

18학번, 47년생 큰형님이 새내기에게 보내는 편지

아우,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봄이 벌써 와 있네.
오늘은 운동을 하며 걷는 나의 운동 코스에 나와 있어. 길 양 옆엔 벚꽃이 꽃터널을 이루고 있고, 그 끝에는 늘 푸른 대나무 숲도 있지. 저수지도 있는 아주 멋진 곳이야.

내가 졸업한 모교인 ‘충남도립대학교’에도 개나리꽃, 벚꽃들이 피어나고, 뒷산엔 진달래꽃 흐드러졌겠지? 신입생 새내기들은 꿈에 부풀어 있을 테고... 난 이번에 4년제 대학 3학년으로 편입했다네. 사회생활도 하면서 공부를 병행하려니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네. 내 나이 70이 넘었지 않나? 그래도 가는 데까지는 가 보려 하네.

아우가 다니는 충남도립대학교, 참 좋은 대학이야. 내 친구들과 술 한잔 마시면서 나는 늘 자랑하지. 등록금 싸고 기숙사는 또 얼마나 쾌적한지! 아우는 지금 그 좋은 환경에서 자신의 앞날을 위해, 자신의 성장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

아우도 알다시피 난 70이 확 넘은 나이에 대학에 입학했지. 그런 만큼 내 대학생활은 너무나 행복하고 값진 나날이었네. 그 나이에 공부해서 무엇 하겠느냐고 핀잔을 준 사람도 있었지만, 늦어서 못 할 일은 없는 법이라네. 더구나 아우는 써 내려갈 이야기와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나?

아우! 난 사실 학교 성적은 좋지 않았어. 그러나 젊어서 못한 대학생활이 마냥 좋았지. 등, 하교 시간 지친 다리 밑 붓어 떼와 잉어들 보는 것도 좋았고... 그러나 아우는 아니야. 나와는 좀 다르지 않나? 그래서 내가 대나무 이야기를 좀 할까 하네.

대나무는 처음엔 금방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뿌리가 땅 깊은 곳으로 확실히 파고들어 완전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 속으로, 속으로만 자라다가 어느 순간 땅 위로 손을 내밀기 시작하면 단숨에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게 성장한다네. 난 아우도 그런 대나무처럼 충남도립대학교에서 알찬 시간을 보내주길 바라네.

무딘 송곳이 넓고 깊은 구멍을 만든다고 하지 않나?

아우, 이제 그만 마무리해야 하겠네. 학교 과제물 하러 가야 하거든. 학교 생활 힘들 땐 내 생각 하게나. 큰형님도 하는데... 아! 사실 나 너무 힘들어 호호~

참! 대학 신문 나오면 몇 부 보내줘. 내 친구에게 자랑해야지!

아우! 마스크 꼭 쓰고 다니고, 손 꼭 씻고 진짜 건강 잘 챙겨야 하네. 코로나 지나간 때, 환한 달밤에 만나 딱 걸리 한잔 하게나. 바쁜 영탁이도 불러 오고!

또 쓰겠네. 아자!

—아산에서 큰형님이—

영화 속 디저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야외활동이 제한되는 요즘 영화는 아쉬운대로 즐거운 여가 대체물이 된다. 영화만으로도 재미가 되지만 영화속에 나오는 소소한 디저트들을 찾아서 한번 만들어 보면서 이 시국을 보내면 어떨는지. 본 영화와 디저트 기사는 쿠키 잡지를 통하여 본인이 게재했었던 기사를 다시 재편집한 것임을 밝힙니다.

쿠키 한 조각의 크나큰 행복 : ‘스트레인저 댄 픽션’



살면서 행복은 꼭 거창한 것만은 아니다. 늘 고전하던 쿠키 굽기에 성공했을 때, 막 구운 한 조각을 좋은 이와 나눌 때...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마주 하는 기쁨이란. 영화 ‘스트레인저 댄 픽션’은 말한다. 작은 쿠키 한 조각이 주는 삶이 크나큰 행복을.

저녁식사 뒤 둘러앉아 과일을 아작거리며 보는 TV. 황당한 드라마 전개에 가족은 “어머, 웬일이야?”를 연발한다. “뭐 이런 막장이 다 있어!”하며 기막혀 하지만, 사실 현실은 드라마나 영화, 소설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로 가득하다. 모두가 현실에 바탕해서 쓰이는 것들이니까. 영화 스트레인저 댄 픽션 (Stranger than Fiction) 역시 영화 제목이 말해주듯 꾸며낸 이야기보다 더 황당하고 믿기 어려운 현실을 이야기한다.

“만약내가세상을더 좋게 만들 수 있다면, 다음 아인 쿠키로 할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이에요”

하루하루를 철저히 계획해서 기계적으로 사는 플랜맨 - 해롤드 크릭. 직업은 국세청 공무원이다. 정확하지만 지루한 일상의 연속.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의 머릿속에서 그가 한 행동 하나하나를 정확히 설명해주는 의문의 여자 목소리를 듣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국가가 국방에 돈을 퍼붓는 것이 불만이라 딱 국방비 비율만큼의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황당무계한 미납자를 만나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예상치 못한 일로, 그의 완벽한 계획에 어긋나는 일이다.

세금 미납자는 안나 파스칼이라는 여자로 알고보니 하버드 로스쿨은 다닌 수재였다. 그녀는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친구들을 위해 쿠키를 굽고 간식을 만들다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빵을 굽기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던다. 늦은 밤 찾아온 해롤드에게 안나는 우유 한 잔과 갓 구운 쿠키를 내민다. 피곤하고 우울한 일과의 끝자락에서 따뜻한 쿠키 한 조각이 건네는 위로는 해롤드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세금 미납자의 ‘뇌물’은 절대 받을 수 없다며 쿠키값을 계산하겠다고 해서 기어코 산통을 깨어버리기는 했지만.

“쿠키 하나드세요. 힘들고 고된 하루의 끝에 엄마들은 아이에게 쿠키로 보상하잖아요”

자신의 행동을 읊어대는 머릿속 목소리는 점점 심해지고, 해롤드는 급기야 정신과 상담을 받기에 이른다. 그 과정에서 문학교수를 소개받는데, 그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문학 속 주인공이라면 자신의 인생이 희극인지 비극인지 또 누가 써 내려가는 작품인지 답을 찾으려 한다.

이때부터 해롤드는 예전의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 안나에게 밀가루를 들고 찾아가 “왜냐하면 제가 당신을 원하니까요”라며 담백한 고백을 한다든지,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하던 기타를 다시 시작한다든지 말이다. 마침내 그는 머릿속 목소리의 주인공이 작가 케이 에이펠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그녀를 찾아간다. 에이펠을 죽음을 탐미하며 언제나 비극으로 끝나는 소설을 쓰는 작가다. 그리고 이번 소설의 주인공이 바로 해롤드 크릭, 그였다! 과연 그는 인생이라는 소설에서 끝끝내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말 것인가?

“해롤드는 바바리안슈거 쿠키를 한 입 베어물자마자 드디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는 걸 느꼈다.”

직구는 현실 앞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내 인생도 어쩌면 누군가의 활자에서 태어난 것은 아닌지, 신이 이미 그 길을 다 그려놓은 것은 아닌지. 내가 주인공인 이 삶의 끝은 과연 희극일까, 아니면 비극일까? ‘스트레인저 댄 픽션’ 영화포스터에는 제목의 마침표가 해롤드 머리 위로 뚝 떨어지게 그렸다. 이런 깨알 센스라니! 다시 한 번 반하게 되는 영화다. 해롤드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써질까?

삶이 답답하다고 느껴질 때, 슬픔과 절망에 가로막혀 있을 때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은 사실 별게 아닐 때가 많다. 쿠키 한 개의 힘이란 그런 것이다. 작은 것에서 찾는 행복, 영화 ‘스트레인저 댄 픽션’이다.

초코칩 쿠키 - 해롤드를 위한 안나의 위로

재료

무염버터 450g, 설탕 400g, 흑설탕 250g, 달걀 200g, 바닐라에센스 10g, 밀가루(중력분) 900g, 베이킹 소다 15g, 소금 7g, 다크초코칩 400g, 피칸 200g



만들기

1. 믹싱볼에 실온 상태의 무염 버터와 설탕, 흑설탕을 넣는다.
2. 휘퍼로 반죽이 크림처럼 부드럽게 될 때까지 잘 섞는다.
3. 계란과 바닐라 에센스를 넣고 섞는다.
4. 밀가루, 베이킹소다, 소금을 체쳐서 넣어주고 주걱으로 긁듯이 섞어준다.
5. 다크 초코칩과 피칸을 넣고 섞어 한 덩어리가 되도록 뭉친 후 한 시간 이상 냉장고에서 휴지한다. 휴지를 통해서 밀가루 특유의 날가루맛이 없어지고 모든 재료와 조화롭게 된다.
6. 반죽을 아이스크림 스푼으로 떠서 베이킹 팬에 팬닝한 다음 150도 오븐에서 20분정도 구워 식히면 완성.

원 페렐 매기 질렌할 더스틴 호프만 엠마 톰슨 쾰리파

스트레인저
댄 픽션
Stranger than Fiction
내가 유명한 소설 주인공이라고?

OLUMBA PICTURES AND HARBOLD PICTURES PRESENT
A FILM BY MICHAEL LEWIS "STRANGER THAN FICTION"
CASTING BY JANE ROSS COSTUME DESIGNER JANE ROSS
EDITED BY JANE ROSS PRODUCTION DESIGNER JANE ROSS
EXECUTIVE PRODUCERS JANE ROSS JANE ROSS
PRODUCED BY JANE ROSS WRITTEN BY JANE ROSS
DIRECTED BY JANE ROSS

스트레인저 댄 픽션 Stranger than Fiction, 2006 제작
미국 | 코미디 외 | 2007.09.06 개봉 | 113분
감독 | 마크 포스터
출연 | 윌 페렐, 매기 질렌할, 더스틴 호프만, 엠마 톰슨

MBTI별 이상형 특징

요즘 MBTI 성격 유형 검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 등을 받으며 주목을 받고 있다. 하한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테스트를 시작했지만 생각했던 거보다 자신들의 성격 유형 및 특징이 너무 잘 맞기 때문이다. MBTI 성격 유형 검사하는 방법은 검색창에 'MBTI 성격 유형 검사 사이트'라고 치면 'MBTI 검사::무료성격유형검사 사이트'라는 웹사이트가 나온다. 여기서 바로 테스트를 시작하면 된다. 한번 자신의 성격 유형이 무엇인지 테스트해보고, 아래의 결과를 통해 나에게 맞는 연애 이상형을 알아보자.

ESTP 너무 지나친 관심, 절난 척 금지, 내만 아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	ESFP 연락 자주하는 사람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고 선물 많이 주는 사람	ESTJ 우쭐해 주면서 나를 최고로 만들어주는 사람 진중하고 깊은 대화가 가능한 사람	ESFJ 적당 선을 지키면서 먼저 다가와주는 사람 다정다감 스타일, 스윗남
ISTP 의사소통과 감정 표현이 정확한 사람 사생활 존중해주는 사람	ISFP 개인영역 침범하는 순간 OUT 연애에 딱히 관심이 없는 타입	ISTJ 과묵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잘 이해해주고 항상 웃는 얼굴의 평화주의자를 선호함	ISFJ 성실하고 똑 부러지는 사람 내가 해주는 만큼 돌려주는 사람에게 빠짐
ENTP 말보다 행동인 사람 공감 잘해주고 싸울 때 질 줄 아는 사람	ENFP 내가 좋아하는 사람 솔직하고 같이 있으면 편안한 사람	ENTJ 일 잘하고 똑똑한 사람 가벼운 관계보다는 진중하게 시작하는 걸 선호	ENFJ 고마움을 잘 표현할 줄 아는 사람 먼저 다가와주고 애기 잘 들어주는 사람
INTP 취향 잘 맞는 사람 까부리거나 밀당하는 게 싫어함	INFP 좋아해주고 티내주는 사람 관심사와 개그 코드가 맞아아함	INTJ 악간 금사빠 라서 쉽게 호감을 느끼는 편이라 첫인상 그대로 한결같은 사람	INFJ 도덕적이고 신뢰가 가는 사람 나를 은근슬쩍 귀여워해주는 다정한 사람

CNSUBC 충남도립대학교 신문 · 방송활동



안녕하세요, 충남도립대학교 학생 여러분과 신문을 구독하고 계신 구독자분들!
여러분께 이 글을 전해드리는 저는 교내 신문방송사의 신문편집국장 엄기연입니다.

신문방송사의 소개 및 운영과 신문 활용에 관련하여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신문방송사는 김은희 주간교수 아래 신문편집국(이하 신문사) 엄기연(경찰행정학과) 편집국장 외 7명이 기자, 방송편성국(이하 방송국) 유수정 편성국장(작업치료학과) 외 9명의 아나운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51호를 발간하게 된 신문사는 교내의 크고 작은 행사나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필요하거나 궁금해 하시는 언론 정보를 정확하고 다양한 기사로 만들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신문은 1년에 3분기로 나누어 6월, 9월, 12월에 각각 제작되며 어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교내 곳곳의 신문배치대 외에도 각 과에 개별적으로 직접 배부하고 있습니다. 신문배치대는 본관 1층, 도서관 입구, 교내편의점 입구, 학생식당 입구, 해오름관 입구, 예지관 입구, 예지관과 진리관 사이 통로 등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국은 점심과 저녁 시간에 교내의 음악방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송시간은 오전 방송-8:30~8:50 / 오후 방송-18:20~18:50으로 정해져있으며, 교내 게시판에 붙은 신청곡 리스트에 원하시는 곡을 작성하시면 언제든지 선별하여 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여 늘 성장해가는 충남도립대학교 신문방송사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